

시편 130편

¹여호와여,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.

²주여, 내 소리를 들으시며
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.

³여호와여, 주께서 죄악을
감찰하실진대 주여, 누가 서리이까.

⁴그러나 사유하심이
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.

⁵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
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.

⁶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
참으로 파숫군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.

⁷이스라엘아, 여호와를 바랄지어다.
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.

⁸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.